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다.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정부시절 민주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제 부활이 거론되면서부터다.

역대 정부마다 논의 무성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8월 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제안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약으로 읍면동 폐지 등을 제시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까지 채택했으나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행정구역개편과 소통

권 3개시 통합 역시 도시별로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화도 없고 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그려진 행정구역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정쟁만 부추길 공산도 크다.

지방분권화 역행 없어야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2 하반기에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뜻을 같이 한데다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력이 보태지면 그 이전이라도 결문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짜는 포석이다. 또 다시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지역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아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호남과의 소통에 인색했던 5+2 광역경제권의 재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시설

은천세·간판세 정도로 지방재정 해결되나

내년부터 지방주민들은 간판세, 은천세와 같은 '지역세'도 내게 생겼다. 정부가 16일 내년 경제융융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감소와 실적자 구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온 목적세마저 폐지할 움직임이어서 지역 재정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가라앉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절실해질 것이 뻔한데, 지방재정에는 3조1천억원이나 펄크가 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고 납득할 만한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 '빅3' 협력업체 보호방안 절실하다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욱 죽을 맛이다. 가아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광주 빅3 기업'의 감소에 이따가 닦았다.

일부 기업이 협력업체는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져 격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종사자들에게 대한 해고도 시작했다.

빅3의 조업시간은 갈수록 줄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은행도 타격을 받는다. 부품을 없애더니 옛그때부터 정공 조업시간도 확 줄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규모가 크고 빠를수록 좋다.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상욱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경기침체 여파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활 근거지였던 직장을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게 무난히 퇴직할 수 있는 데에는 고된 가사에 매달리면서도 묵묵히 뒷바라지 해온 부인들의 내조가 크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고

서양순



광주일보사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빛고를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 환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빛고 3개월이 지났다. 맨 먼저 읽은 책이 '한국사전 1·2·3권'이었다. 또 박지연의 '열하일기 1·2권', '한국의 명수필', '현대철학자들'을 읽었다.

퇴직하는 동료 여러분!

을 발판삼아 부모님을 알뜰히 섬기고 동생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퇴직하는 동료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또 다시 험난한 제 2의 인생이, 그러니까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져 간다는 요즈음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가시밭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행복

과 단체로도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참가할 수 있어 가정독서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의 긴 여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영겁(永劫)한 세월을 비교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시간이다.

'건강 목걸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얼마전 시내 액세서리 가게에 갔다. 건강 목걸이를 팔고 있었다. 지난 베이징올림픽때 야구 선수들이 목걸이를 착용한 제품이었던. 대표 선수들의 사진도 함께 진열돼 있었다.

은 보통 40대를 지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누구나 나타난다. 이 목걸이가 피로감을 풀어주고, 컨디션 조절에도 좋다고 말한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오기동

無等鼓

마을의 젊은 지구 에르비노의 약혼녀 아미나는 몽유병 환자였다. 그런데 아미나는 결혼식 전날 밤 마을 여관에 머물러 있는 영주인 백작의 방에 나타났다.

하' 최신희에 수면 도중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낸 44세 여성의 임상사례를 보고하며 몽유병 목록에 '수면 메일링'을 새로 추가했다고 영국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 여성은 어린시절 몽유병이나 야간 공포증을 겪었던 병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이 쓴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이메일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과확의 발달과 함께 질환의 첨단화도 어디까지 진전될 지 두렵기까지 하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푸드코트 '음식 견본품' 실제와 너무 달라 배신감

며칠전 대형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점심때가 돼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들어갔다. 푸드코트는 계산대 옆에 이미지로 만든 견본품이 있어서 함께 간 일행 셋은 각각 메뉴를 정하고 음식을 주문했다.

원에게 "왜 메뉴의 견본품과 실제 음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냐"며 항의를 했다. 그러자 직원은 마치 기다리거라든 했다.